

OPINION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문화산책

사라진 골목서점의 귀환을 바라며

강경호

시외서점 발행인



10여 년 전에 골목서점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대책을 논하는 텔레비전에 나가서 토론했던 적이 있다. 그때보다

오늘의 더 상황이 나빠졌다. 골목서점 뿐만 아니라 대형 서점조차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서점이 사라지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시각매체들, 즉 디지털의 발효로 종이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으며, 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발달되어 언제든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익숙해진 시대의 흐름이 골목서점의 문을 닫게 했다. 그리고 서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서점을 통해 주문하면 손쉽게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이다.

‘골목서점’ 또는 ‘동네서점’이라는 말이 경멸다. 동네 골목에서 하루종일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애인이나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책을 선물하는 일은 매우 품격 있고 근사한 일이었다. 헌책방에 가서 뒤적거리다가 귀한 책을 발견하면 보물을 얻은 것처럼 큰 기쁨이었다. 누군가가 팔지를 그으며 읽은 책을 읽는 일은 낭만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겹고 친근한 골목서점들이 거의 사라졌

다. 겨우 학교 앞에 문방구를 겸한 곳에 참고서를 진열한 서점들이 골목서점의 명맥을 잇고 있다.

지난해 연말, 책이 불타나게 잘 팔리는 시기가 있었다.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서점들이 적막하다. 가끔 서점에 가면 그 공간이 너무 행하다. 드문드문 책을 사러 온 사람들이 고맙고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진리이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사색하거나 연구한 책 속의 지혜와 지식을 책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어 책을 읽는 일은 저자들에게 고마운 일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책, 먼 나라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일은, 신비롭고 즐거운 상상력을 발현하는 정신 여행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들을 만나고, 먼 나라에 가지 않아도 세계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환상적인 여행도 할 수도 있어, 책 읽는 일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세상에서 제일 영양가 풍부한 식사가 되기도 한다.

물론 책을 읽지 않아도 시각매체를 통해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끼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즉 책을 읽다가 마음이 가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읽는 감성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다. 그리고 손에 책을 발라가며 책장을 넘길 때의 촉감은 물성을 느끼게 하고, 손에 쥔 책의 부피와 무게감을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문화적 유량을 충족시켜준다. 더불어 책들이 서재에 꽂혀있는 것들을 보면 그동안 읽었던 책들의 이름들이 지닌 이력과, 책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연상되는 수많은 서사들이 행복하게 한다. 그러므로 서재에 꽂힌 오래 전에 읽은 책을 펼치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서재에서 꺼낸 어떤 책 뒤에 골목서점의 이름과 구입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을 통해 생쥐처럼 들락날락 했던 골목서점이 떠오르고 마음씨 좋은 서점 주인이 떠오른다. 서점에 가면 늘 책을 읽고 있던 어여쁜 아가씨도 생각난다. 이처럼 골목서점은 단순하게 책을 파는 상점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골목서점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정말 소중한 무엇을 잃은 듯 마음이 쓸쓸하다. 서점들이 자취를 감춘 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상점들이 채워져 있다. 자본주의의 풍경이 휘황찬란하다.

골목서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근대의 풍경 하나가 사라졌을 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또는 옛 추억이 갖는 낭만적 풍경 하나가 사라졌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골목서점이 사라지는 모습을 방관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이 시대는 지성의 양식을 공급하던 식당이 사라진 사건이며, 지성과 실존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골목서점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자본 생태계를 위한 탐욕에만 열안이 되어 소중한 것의 상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골목서점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늘 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일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골목서점이 다시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에든버러에서 연주할 광주 예술가들과 메세나

다. 이를 통해 악기 제작, 음악 교육, 실험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업사이클 악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악 분무기로 만든 유니크 첼로다. 농악분무기 통은 기존 나무 첼로와 크기가 같고 울림통 역할을 해 업사이클 악기로 적합하다. 플라스틱 파르렛의 악기는 어린이용 장난감을 활용해 제작되었다.

이번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크리에이티브아트는 ‘2계’ (The Two Seasons)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사계절이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은 지구의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창작곡이다. 연주에 사용할 악기는 모두 버려진 플라스틱과 재활용 자원으로 제작된 업사이클 악기다.

이번 공연이 갖는 의미는 크다.

첫째, 예술을 통한 환경 메시지 전달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음악으로 표현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예술 모델 제시다. 업사이클 악기를 활용한 공연은 자원 순환과 창작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시도다. 셋째, 광주 청년 예술가들의 글로벌 진출이다. 이번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광주의 젊은 예술가들은 국제적 경험을 쌓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효과와 더불어 한국의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와같은 창의적인 청년 예술가들에게 조용한 응원과 큰 힘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 광주지역 기업들의 메세나 기부와 ESG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광주문화재단에서는 크리에이티브아트의 에든버러 참가를 위해 자금 지원을 한다.

하지만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충분한 공연을 하기에는 지원금이 넉넉지 않다. 이에 크리에이티브아트의 이규

대표는 스스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기업들이 메세나로 나서고 있다. D사, P사, H사 등 기업들이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과 문화예술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폐자원을 활용한 악기 제작을 지원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예술과 연결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ESG 기반의 메세나 기부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크리에이티브아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예술이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버려진 자원으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창조적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의 예술이 세계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다.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업과 예술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번에 참여하고 후원해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우리 광주 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메세나에 참여해준 기업들이 참 고맙다.

취재수첩

조속한 헌재 결정,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내 상황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비상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문제가 아직 무엇이나 해결된 게 없어서다. 사실 상황은 빠르게 해결될 것 같아 보였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빠르게 의결했고, 계엄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급물살을 타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이자 구금 51일 만에 석방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곳곳에서 집회

를 열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대학가까지 들불처럼 번지기까지 했다.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극단적 분열로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국민 분열이 견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빨리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다.

탄핵안을 인용하는 기각하는 어떠한 결정이 나와야 극단적으로 갈라진 여론의 통합이 시작될 수 있다.

이후에는 정적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극단으로 치달은 대립으로 인해 국민 통합이 어려울지라도 선거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을 약속한다. 헌법재판소의 분열된 여론이 일부 잦아들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으로 하루 빨리 국민 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설

총장로 ‘반값상가’ 상권 회복 전환점되길

한때 호남지역 최대 상권이자 젊은이들의 성지였던 광주 동구 총장로에 ‘반값 상가’가 등장한다고 한다.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한 상권 살리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건물주들은 ‘반값 임대료’를 제공하는 등 지구노력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와 동구는 지난 12일 총장로 갤러리 존에서 총장로 1·2·3가 상인회, 상가 건물주 등과 함께 ‘총장로 활성화’를 위한 반값 임대료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상가 건물주 김희정 대표와 정순기 상인회총장과 총장로 1~3가 25개 공실 점포의 건물주 23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총장로 건물주들은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5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 최소 2년간의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상인회는 총장로 상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동구도 상가공실 반값 임대 상생모델의 성공을 적극 지원기로 했다.

광주시는 총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상점가 축제 ‘라운 페스타’를 열었다. 또 특화거리 조성, 골목여행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동구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2억원의 구 자체예산을 투입,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임차 소상공인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사실 총장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가게 4곳 중 1곳이 비어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총장로 1·2·3가는 전체 점포 393개 중 영업 점포 305개, 빈점포 88개로 공실률이 22.4%이며 총장로 4·5가는 이보다 높은 29.9%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상인들과 지자체의 상생 협약으로 탄생한 ‘반값 상가’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총장로 상권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해남 스포츠마케팅 관광비수기에 빛났다

망골 해남군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이 관광비수기에 빛을 발했다. 2024~2025 동계전지훈련 기간 동안 연인원 3만여명을 유치하며 30여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거둔데 따른 것이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성균관대학교 농구팀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2개 종목, 210개팀, 3000여명의 선수들이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이 기간 축구와 농구, 야구 등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펜싱 스토브리 그가 이곳에서 열렸고 국가대표 육상 후보선수단과 청소년 대표, 꿈나무 선수단 100여명과 근대5종 국가대표 상비군 등도 찾았다.

이들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3만여명에 달하는 선수단이 1754일에 이르는 훈련일수와 1600여일의 숙박일수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광비수기에 숙박업소와 음식점, 지역 상가 등에 활기를 더했고 30여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뒤따라 왔다.

해남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따뜻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군의 적극적인 시설 확충과 수년간 쌓아온 스포츠마케팅 노하우가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해남군은 지난 2007년 스포츠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 대회와 전지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을 본격 시작했다.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 기존 우슬경기장과 체육관 외에 3면의 축구 전용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우슬체육공원을 비롯해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 펜싱체육관, 우슬트리닝센터와 현대식 6레인의 전천후 육상 실내 경기장을 차례로 확충해 왔다. 또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훈련 장비를 육상 트리닝센터에 비치해 윈스톱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뿐 아니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수준높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트레이너 6명이 상주하는 재활캠프는 물론 훈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고무마 빵 만들기,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등 해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스포투어(spo-tour)’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제2스포츠타운인 해남스포츠파크와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리체육관을 올해 완공할 예정인 해남군이 앞으로도 동계전지훈련 성지로 계속해서 자리잡기를 바란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list of staff members.